[보도자료]

리디북스, 첫 전자책 단말기 ‘리디북스 페이퍼’ 출시

- 종이책처럼 선명한 화면의 단말기, 다음달 5일 판매 시작

- 고급형 리디북스 페이퍼와 보급형 페이퍼 라이트 두 모델로 판매

- 최고의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최고의 하드웨어와 결합

전자책 서점 리디북스는 전자책을 가장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단말기 '리디북스 페이퍼’를 다음달 5일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리디북스 페이퍼는 리디북스가 처음으로 판매하는 전자책 단말기로, 출시 전부터 출시 예고 소식만으로도 전자책 독자들의 열광적인 기대와 성원을 받아온 제품이다.

출시일과 가격

리디북스 페이퍼는 10월 5일 출시되며 판매는 리디북스의 온라인샵인 리디샵을 통해 진행된다. 출시일까지 리디북스 홈페이지(www.ridibooks.com)를 통해 출시일 문자알림을 신청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1만 원 추가 할인 쿠폰도 받을 수 있다.

리디북스 페이퍼는 300ppi급 고해상도의 페이퍼 디스플레이를 갖춘 ‘리디북스 페이퍼’ 모델 및 이와 모든 성능이 동일하지만 화면의 밀도가 다소 낮은(212ppi) ’리디북스 페이퍼 Lite(라이트)’의 두 가지 모델로 발매된다. 리디북스 페이퍼의 가격은 14만9000원으로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300ppi급 고해상도 전자잉크 단말기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이다. 페이퍼 라이트의 가격은 8만9000원이다. 문자알림을 통한 1만 원 할인 쿠폰을 받을 경우 페이퍼는 13만9000원, 페이퍼 라이트는 7만9000원에 각각 구입할 수 있다. 전자책 헤비유저들에게는 고화질의 리디북스 페이퍼가, 전자책에 막 입문하는 독자들에게는 부담없는 가격의 페이퍼 라이트가 각각 좋은 선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리디북스 페이퍼는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전자책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epub 파일과 pdf 파일, txt 파일을 지원하며,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해당 형식의 파일을 불러들여 읽는 것도 가능하다. 리디북스는 현재 37만 권 이상의 전자책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리디북스 독자들을 위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다.

전자잉크 그 이상, 페이퍼 디스플레이

리디북스 페이퍼의 ‘페이퍼 디스플레이’(300 pixel per inch)는 6인치 크기의 화면에 가로, 세로 각각 1072개와 1448개의 화소를 빼곡하게 사용해 마치 종이에 인쇄한 것처럼 또렷하게 보이는 화면이 특징이다. 페이퍼 디스플레이의 전자잉크 화면은 사람의 육안으로 화면을 이루는 개별 화소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세밀한 표현이 가능하다.

또 리디북스 페이퍼는 어두운 곳에서는 스탠드 등 별도의 조명이 필요한 종이책과 달리 스크린에 프론트라이트 조명을 사용해 별도의 조명등 없이도 기기만 손에 든 채 편하게 독서를 즐길 수 있다. 이와 동시에 햇볕이 내리쬐는 야외에서도 종이책처럼 편안한 독서가 가능하다. 이는 기존 태블릿PC와 비교해 전자잉크 방식 단말기만이 가진 장점으로 반사 때문에 제대로 화면을 읽을 수 없었던 LCD와 비교해 화면 반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밝은 곳에서라도 또렷한 글씨를 읽을 수 있다. 종이책과 태블릿PC가 각자 가진 서로의 장점을 모두 합치고 단점은 모두 해결한 셈이다. 이외에도 기존 전자잉크 단말기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화면에 전에 읽던 화면의 잔상이 남는 현상은 ‘리걸 웨이브폼’이라는 기술을 지원해 해결했다. 이 덕분에 부드럽고 빠른 화면 전환이 이뤄져 기존 전자잉크 단말기의 단점을 상당 부분 해결한 것 또한 특징이다.

겉과 속이 완벽한 최고의 단말기

국내 최고 사양의 기계적 성능도 리디북스 페이퍼의 장점이다. 빠른 처리속도를 위해 리디북스 페이퍼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모든 전자잉크 단말기 가운데 최고 속도인 1GHz 속도의 듀얼코어 CPU를 사용했다. 또 국내 전자잉크 단말기 가운데 최대 용량인 2800mAh의 배터리를 사용해 충전 횟수를 줄이고자 노력했다. 이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전자잉크 단말기보다 약 80% 큰 용량이다. 큰 배터리를 사용했지만 무게는 190g으로 최근 발매된 스마트폰인 아이폰6S플러스(192g)보다도 가볍다. 특히 전자책 페이지를 쉽게 넘길 수 있도록 페이지 넘김 버튼을 기계 좌우에 설치했다. 물리적인 버튼 없이 터치스크린만 조작해서도 페이지를 넘길 수 있지만, 종이책처럼 책장을 넘기는 손의 느낌까지 고려한 설계다.

기계적인 완성도 못잖은 리디북스 페이퍼의 핵심은 바로 차별화된 소프트웨어다. 리디북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자책을 서비스하기 위해 사업을 시작한 회사로 전자책 관련 소프트웨어 기술에서는 2009년 서비스 시작 이후 지금까지 줄곧 경쟁사를 압도해 왔다. 리디북스 개발자들은 페이퍼 개발을 준비하면서 전자잉크 단말기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전자잉크를 사용한 국내외 단말기에서 작동하는 전자잉크 전용앱을 만들어 배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수집된 사용자들의 의견과 전자잉크 기계에 대한 노하우가 리디북스 페이퍼에 고스란히 적용된 것이다.

리디북스의 남현우 CTO(최고개발책임자)는 “거의 매주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흑백의 전자잉크 화면에 최적화된 사용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페이퍼를 만드는 우리들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수정에 수정을 거듭했고, 앞으로도 최고의 가독성을 위해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리디북스는 리디북스 페이퍼에서 사용 가능한 커버 케이스도 블랙, 블루, 레드의 세 가지 색상으로 판매할 계획이다.